

91.3.14

**걸프전쟁 파병반대
어머니모임 토론회**

걸프전은 끝났지만 어린이들이 전쟁흉내 등 전쟁을 놀이로 삼고, 군복을 본뜬 옷이 여성 봄패션으로 등장하는 등 전쟁문화의 확산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. 지난 2월 발족된 '걸프전쟁과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어머니 모임 준비위원회'(위원장 이효재)

**'힘 논리' 앞세운 군사문화 확산
장난감·패션에 침투...정서 황폐화 우려**

주최로 12일 프란체스코회관에서 '걸프전쟁이 퍼뜨린 전쟁문화의 확산을 우려한다'는 주제의 공개토론회에서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 김윤옥 원장은 "걸프전이 보여준 '힘의 논리'는 분단으로 인해 가뜰이나 군사문화적인 풍조가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

한국인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"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. 즉 기성세대를 모방하며 자라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보다는 "자기 이익을 위해선 어떠한 수단이라도 사용하는 가치관을 갖게 만들 우려가 있다"

는 것이다.

언론의 전쟁보도 태도를 분석한 신문비평가 안일순씨는 "걸프전 기간중 언론의 경쟁적인 전쟁 뉴스 보도는 전쟁 분위기를 조성, 냉전논리, 위기의식을 극대화해 국민들을 보수·안정의 이데올로기에 묶어두는 역할을 했다"고 지적했다. 안씨는 또 생활현장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△군복을 본뜬 여성 봄옷 △폭격기, 헬리콥터 등 전쟁장난감 판매 확대 △전쟁관련 액션영화 붐과 같은

'걸프전 증후군'은 "앞으로 더 확대될 것"이라면서 "전쟁문화의 확산을 막는 반전운동을 펴야 한다"고 강조했다.

걸프전 직후 전쟁장난감 확산 실태를 조사한 공해추방운동연합 여성위원회 구희숙 위원장은 "조사결과 전쟁이 터지기 전보다 2~3배나 전쟁장난감이 많이 팔렸다"고 밝히고 "전쟁장난감의 판매증가는 자라나는 어린 세대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메마르게 할 우려가 높다"고 말했다.

8살 韓國 소년 강제징용

日 北海道 서 노역중死亡

日 시민 日帝잔학폭로
【東京 李洛淵(파원) 제
2차 세계대전 말기인 1



945년6월 겨우 8세이
던 韓國人 소년이 日本 旭

카이도(北海道) 시베쓰초
(標津町)의 舊 日本海軍 倉
庫 跡에 建設된 倉庫에서 1
제 노역중 사망했다는 사실
이 최근 밝혀졌다.
이같은 사실은 旭카이도
교육대학 구시노(鉤路) 분
교장사인 향토사학자 마
쓰모토 시게요시(松本成
美, 64사진)가 시베쓰초
사무소에 보관돼 있는 戰
時중의 「埋火葬 人骨證」이
라는 자료에서 확인했다.

이에따르면 당시 생후
8년10개월이던 韓國인 소
년 「朴田一良」(1936년
8월25일생·일본시창씨개
명)군이 1945년6월15
일 패렬으로 병사, 17일 화
장이 허가된것으로 기록돼
있다. 이자료는 또한 朴군
의 당시 신분증 「土工夫」
본적을 「慶北義城郡安平면
河寧洞」으로 기록하고 있
다.
8세소년의 강제노역과

사망은 일제의 韓國인 징
용에서 그예가 많지 않은
충격적 사건으로 평가되고
있다. 일본 쓰다주쿠(津田
塾)대학 다카사키 소지(高
崎宗司) 교수는 「어린이 강
제징용의 실태는 최근 1,
2년 사이에 서서히 밝혀
지기 시작했다」면서 「예컨
대 도야마(富山)縣에서는
12~16세의 조선인 소년
2천8백명, 가나카와(神奈
川)縣에서는 12~18세의
臺灣 소년 8천명가량이
군수공장에서 강제노역했
던 것으로 밝혀졌으나 8
세소년의 강제노역과 화장
은 어쩌면 일본전국에서
처음 확인된 게 아닌가 싶
다」고 말했다.